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말씀 주제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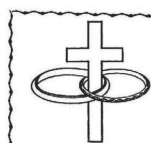
서울주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주보에서 변함없이 계속 연재되고 있는 코너는? 네~ ‘말씀’에 대한 해설이죠. 매주 신부님들이 그 주일의 복음 말씀의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7일의 주보 1면에 깜짝 놀랄 제목이 등장합니다.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

책이나 글은 제목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당연히 첫 장에 있는 제목을 봅니다. 제목은 그 책의 대문과 같은 것이죠. 제목 짓기는 어쩌면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동시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독자에게 궁금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 제목이나 주제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쓰인 글, 특히 주보 말씀의 제목으로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는 사람들을 몹시 궁금하게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주제가 강론과는 안 맞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고 썼길래?”하면서 글을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제목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1970년대 후반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예화와 속담과 유머를 적당히 섞어가면 독자의 눈을 사로



말 씬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

결혼한지 만 3년이 지난 부부였다. 신혼의 단꿈도 지나간 추억의 한도막일 뿐, 이제는 살기에 바쁘기만 하단다. 그들은 어느날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튀어나와 버렸다. 서로의 원죄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었다. 말하자면 아내는 어느새 까만 고양이로 변했고, 남편은 돌게로 변했다. 드디어 둘은 그전에 주례서준 본당신부를 찾아가서 이혼의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본당신부는 의외로 쾌히 승락하면서 옛날에 혼배하던 바로 그자리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본당신부는 장백의와 영대를 걸치고 나와서 이혼예식을 거행하였다. 유난히도 방울이 큰 성수채를 들고서 구랑(田郎)과 구부(田婦)의 앞이마를 “독목” 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성수를 뿌리는 예식인데 반드시 이마에 성수채의 방울이 떨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두번 “독목” 치고 마는것이 아니라, 열번, 스무번 계속 목덜미상태로 치는데 뿔수가 더할수록 치는 강도도 더 세었다. 두사람의 이마에는 어느새 빨갛게 멍이는 혹이 커지기 시작했다. 참다못해서 구랑이 물었다. “아니, 신부님, 이혼예식은 언제나 끝나지는 않습니까?” 본당신부 왈 “응, 한쪽이 죽어야 끝나지!” 하더라는 것.

외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저센 풍랑의 바다로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식에 나갈 때는 세번 기도하라」

오늘 복음에 예수께서는 “하느님이 꼭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에 와서는 서구사회뿐 아니라 동방예의지국이라 자처하던 우리 나라에서도 이혼이 쉽게 허락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변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무슨 영화제목 같은데?)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분석해 봐야겠다. 사랑을 할 때는 눈이 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열애에 빠지면 상대방이 깨곰보라도 그 구멍 하나하나가 마치 귀여운 보조개처럼 보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 결점, 실수들을 모두 아낌없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모든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신의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바로 크리스찬 사랑의 자세이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은 눈이 먼 상태가 차라리 아름다운 상태인 것 같다.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것 아니겠는가? 두눈을 부릅뜨고 “종이야 팔이야” 참도 끝내내는 능숙한 속셈이 사랑일 줄 없다. 세기의 대 역설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치셨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둘째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Mc, 9:35)

결혼생활이란 서로 편리하게 상대방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을 섬겨보라. 그래야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그 본당신부를 찾아가면 될 것이다. (연락처: 712-1377)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글에 빠져들게 해 독자들은 어느새 성경 말씀으로 결론에 단게 합니다(실제로 신자들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그중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본당 신부에게 찾아가면 될 것’이라며 전화번호까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구일까?’, ‘이 번호는 진짜일

까?’ 누구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궁금증은 한 달 후, 11월 18일 자 서울주보 ‘누룩’편에 ‘이혼할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속편)’에서 풀렸습니다.

저자는 당시 사제서품 9년 차 김충수 신부님이었습니다. 김 신부님은 항상 유머와 위트가 있는 강론으로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셨고 항상 춘철살인의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속편에서 김 신부님은 2주 넘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이 울려 상담을 하느라 녹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본당을 찾아 직접 면담을 한 신자들도 있었죠. 김 신부님은 상상을 초월한 특이한(?) 상담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혼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문제는 인간적으로 보다 신앙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말씀의 주제로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과 실제로 주보를 통해 신자들과 이렇게 직접 신앙적인 소통을 이룬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참 신선하고 놀라운 일입니다.